



박태환 “리우올림픽 가고 싶다”

동아수영 400m 3분44초26 세계 4위 기록

도핑 파문 이후 18개월 만의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는 박태환(27)이 리우 올림픽 출전 희망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박태환은 27일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400m 결승 1조 경기에서 3분44초26에 레이스를 마쳤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작성한 개인 최고 기록 3분41초5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 시즌 세계랭킹 4위에 해당하는 좋은 기록이다. 올해 세계랭킹 1위 기록은 맥 호튼(호주)의 3분41초65다.

박태환은 경기 후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만큼 노력했다”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더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이 2014년 전국체전 이후 약 18개월 만에 치르는 공식 복귀 무대다. 박태환은 경기에 집중하겠다면서 이번 대회 기간에는 인터뷰를 사양해왔다.

박태환은 우선 “예상 기록보다 저조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날 자유형 1,500m 경기를 뒀 것을 예로 들면서 “컨디션을 조절한다고 해도 다음 경기에 영향을 준 것 같다. 마라톤을 하고 단거리를 뒀기이어서 조금은 힘들었다”면서도 “첫 100m 구간을 52초대

에 들고 나머지 100m를 53초대에 헤엄친 것은 좋게 생각한다. 여러 상황에서 이런 기록을 낸 나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번 대회는 2016 리우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다. 박태환은 출전한 세 종목에서 모두 리우 올림픽 출전자격이 주어지는 국제수영연맹 A기준기록을 모두 무난히 통과했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다. 하지만 체육회 규정이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고 이번 대회를 통해 박태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생기는 분위기다.

박태환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올림픽은 기회가 주어진다면서 자신있다”고 리우행이 이뤄지길 소망했다.

또 “훈련한 것이 아까웠고, 많은 분이 관심 가져 주시는 데 보답할 길이 대회 출전밖에 없었다”면서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면 자신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태환 자유형 400m 기록 일지

연도	대회	기록
2005년 3월	공인대회	3분50초37 금메달*
11월	다카오 동아시아선수권	3분48초71 금메달**
2006년 8월	캐나다 밴쿠버시리즈	3분45초72 금메달**
12월	도쿄 아시안게임	3분48초44 금메달
2007년 3월	일본 제계선수권	3분44초30 금메달**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	3분41초86 금메달**
2010년 8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3분44초73 금메달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3분41초53 금메달*
2011년 7월	세계수영선수권	3분42초04 금메달
12월	호주 캔버라월드 챔피언십	3분40초44 금메달
2012년 8월	미국 샌디에고대 그랑프리	3분44초96 금메달
7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3분42초06 은메달
2013년 10월	전국체전	3분46초71 금메달
2014년 8월	호주 캔버라월드 챔피언십	3분43초15 은메달
9월	인천 아시안게임	3분48초33 금메달**
11월	전국체전	3분47초40 금메달
2016년 4월	동아대회	3분44초26 금메달

*한국신기록 **아시아신기록 ***도핑 징계로 기록·메달 박탈
아시아 기록 분량(중국) 3분40초14(2012 런던올림픽)
세계 기록 파울 비더만(독일) 3분40초07(2009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

KIA 마운드 ‘적신포’

윤석민·심동섭·김윤동·임준혁 등 부상으로 동반 이탈



윤석민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 부상 악재가 덮쳤다. 선발, 마무리, 필승조가 부상으로 동반 이탈했다.

27일 KIA 엔트리에 변동이 있었다. 선발 윤석민과 필승조 김윤동이 엔트리에서 탈락했고, 우완 한승혁과 좌완 정용운이 시즌 처음 1군에 합류했다. 부상에 따른 엔트리 변동이다.

윤석민은 고질적인 어깨 통증에 발목이 잡혔다. 윤석민은 지난 17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102개의 공을 던지며 완투패를 기록한 뒤,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다. 원래 로테이션상으로는 지난 23일 롯데 원정에 등판을 해야 했지만 이날 선발은 윤석민이 아닌 한기주였다. 다시 28일 한화전에 맞춰 등판 날짜가 미뤄졌지만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김윤동은 왼쪽 옆구리 근육 미세 파열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묵직한 공을 바탕으로 필승조로 맹활약했던 김윤동은 26일 한화와의 경기 후 옆구리에 이상을 느껴 검진을 받았고, 근육 미세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자리를 비우게 됐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10일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장점으로 꼽히던 마운드가 부상으로 흔들리면서 ‘호랑이 군단’의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부상의 시작점에는 과정철이 있다. 시범경기 무실점 행진으로 마무리로 급부상한 과정철은 개막 후 두 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기록하며 마운드의 큰 힘이 되어주었지만, 혈행장애로 지난 10일 가장 먼저 재활군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5선발 임준혁이 엔트리에서 빠졌다. 22일 선발로 등판했던 롯데와의 경기 도중 타구에 오른쪽 종아리를 맞으면서 근육 부분 파열 부상을 당했다. 24일에도 이탈자가 발생했다. 가장 믿음직한 좌완 필승조 심동섭이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여기에 윤석민과 김윤동까지 재활군 신세가 되는 등 개막 한 달도 안돼 선발 2명, 필승조 2명, 마무리가 빠지면서 9위 KIA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부상자들의 복귀 시점이 모호한 가운데 일정도 험난하다. KIA 투수들은 28일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에 이어 29일부터 안방에서 1위 두산 베어스의 타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다음 주중 롯데 자이언츠와 리전매치를 가진 뒤, 주말에는 낯선 고척돔으로 가서 넥센 히어로즈와 3연전을 치러야 한다. 특히날쭉한 방망이도 전력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난세의 영웅이 필요한 KIA다. 한기주와 홍건희가 선발로 나서 앞문을 지켜야 하고 부상 대란 속에 기회를 얻은 사이드암 박준표, 한승혁, 정용운이 불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에 비상이 걸렸던 27일, KIA는 우천취소로 일단 한숨을 돌렸다. 28일에는 하루 쉬 헥터가 그대로 한화 송은병과의 선발 맞대결을 벌이게 된다. 앞선 두 경기에서 부진했던 헥터가 위기의 팀을 구할 특급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심동섭

강정호 복귀 ‘청신포’

트리플A 경기서 홈런 등 5타수 2안타 3타점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빅리그’ 복귀를 재촉하는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강정호는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의 더럼 볼스 애슬레틱 파크에서 열린 더럼 볼스(템파베이 레이스 산하) 트리플A 경기에서 3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다.

이날도 9이닝을 모두 소화하며 주루와 수비를 정상적으로 했다.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 소속으로 경기에 나선 강정호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애덤 윌크를 상대로 좌전안타를 쳤다. 윌크는 ‘아담’이란 등록명으로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투수다.

강정호는 3회 투수 땅볼, 5회 유격수 땅볼, 8회 포수 땅볼로 몰려났지만 장타력을 과시할 기회가 없었다. 9회초 1사 1루 타석에 등장한 강정호는 카일 맥퍼슨을 공략해 왼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올해 트리플A 경기에서 기록한 첫 홈런이다. 인디애나폴리스는 이날 9-0으로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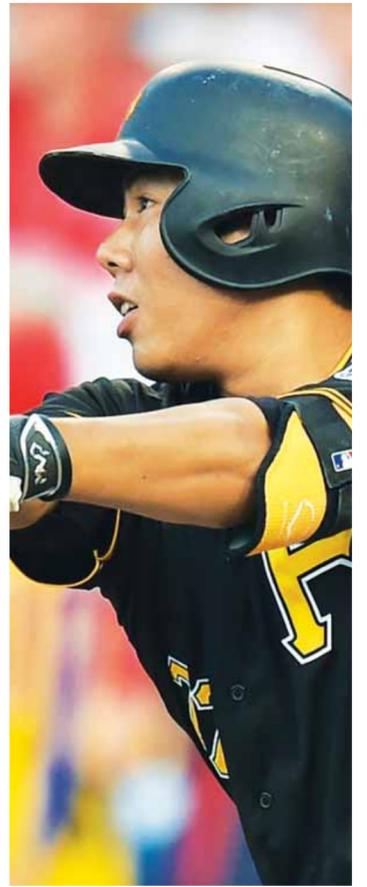
강정호는 마이너리그에서 20타수 3안타(타율 0.150) 1홈런 3타점을 기록했다.

표면적인 성적은 좋지 않지만, ‘재활 경기’라는 진화 목적을 살피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는 지난해 9월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서 1회초 수비 때 병살 플레이를 시도하다 주자 크리스 코글란의 거친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을 다쳤고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재활의 마지막 단계는 수비 때 방향전환, 슬라이딩을 동반한 주루다. 강정호는 최근 마이너리그에서 수비와 주루를 모두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현지 언론도 ‘곧 돌아올 선수’로 강정호를 자주 언급한다. 강정호는 마이너리그 첫 홈런포를 신고하며 빅리그 복귀 ‘명분’도 만들었다.

/연합뉴스



정광중·고역도 ‘금빛 바벨’

박경빈 전국 선수권 남중부 정상...여고부 박건영 등도 선전

정광중·고역·여역사(力士)들이 전국역도대회에서 금빛 바벨을 들어올리며 역도 ‘강호’임을 과시했다.

26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박경빈(정광중 2년)은 지난 25일 경남 고성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 88회 전국 남지역도선수권대회’ 남중부 94kg급 정상에 올랐다.

박경빈은 이날 인상 110kg, 용상 142kg, 합계 252kg을 기록하며 3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박건영(여·정광고 3년)도 이날 여고부 48kg급에 ‘나홀로’ 출전, 인상 60kg, 용상 80kg, 합계 140kg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김연호(여·정광중 2년)도 지난 23일 열린 여중

부 53kg급에 경쟁자 없이 기록 경쟁에 뛰어들어 인상 50kg, 용상 60kg 합계 110kg을 들어올렸다. 역도의 경우 출로 출전하더라도 경기를 진행하는 데다, 학교별로 대회를 선택해 체급별로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점 등이 반영되면서 숫자로만 보면 정광중·고역사 3명이 금메달 9개(인상, 용상, 합계)를 휩쓸게 됐다고 체육회는 설명했다.

이외 마린주(정광중 1년)도 남중부 50kg급에 나서 합계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정광고는 지난 1985년 역도부를 창립한 데 이어 2005년 역도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며 선수 육성에 힘써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Again 2014

노승열 PGA 취리히 클래식 출격

한국남자골프의 영건 노승열(25·나이키골프)이 2년 전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미국 루이지애나주로 출격한다.

28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 TPC(파72·7천425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은 2014년 노승열이 첫 우승을 차지한 대회다.

당시 한국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 전국민이 슬픔에 잠긴 때였다. 노승열은 우승한 뒤 “한

국 국민에게 ‘해피 에너지’를 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힌 뒤 세월호 피해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의 성금을 내놓았다.

노승열은 2015년에도 이 대회에 출전했지만 허리 통증으로 기권하고 말았다.

올해는 부상 없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노승열은 짧은 퍼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레슨을 받고 연습에 집중했다.

이번 시즌 톱10에 한번도 들지 못한 노승열이 2

년 전 우승한 대회에서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와 디펜딩 챔피언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세계랭킹 10위), 세계랭킹 5위 리키 파울러(미국)도 출전해 우승을 다툰다.

여기에 지난해 유럽프로골프투어 신인왕이자 노승열의 ‘절친’ 안병훈(25·CJ그룹)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안병훈은 이날 초 열린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컷타락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샷을 가다듬고 있다.

이 밖에 2002년 이 대회 우승자 최경주(46·SK텔렉ომ)를 비롯해 강성훈(29), 김시우(21·CJ오쇼핑), 김민휘(24), 이동환(28·CJ오쇼핑) 등도 출전해 우승을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올림픽 티켓 경쟁을 이어나간다.

/연합뉴스